



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진도 호우피해 가구 물품 지원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는 1일 진도군청에서 집중호우 침수주택 주민 343세대를 위한 추석명절 지원물품세트 및 이불 기탁식을 가졌다.



조선이공대 총동창회장·부회장
대학발전기금 등 1억500만원 기부

조선이공대학교 총동창회 회장과 부회장이 모교에 대학발전기금과 장학금으로 1억500만원을 기부했다.
1일 조선이공대에 따르면 총동창회장인 윤풍식(㈜국민산업 대표)과 부회장인 나일도(㈜푸른전기 대표)가 각각 5,000만원씩 총 1억원을 대학발전기금으로 냈다.



주승호 한국기술사회회장 ‘이달의 전남대인’

한국기술사회 주승호 회장이 이달의 전남대인으로 선정됐다.
1일 전남대에 따르면 정성택 전남대 총장은 지난 달 30일 접견실에서 한국기술사회 주승호 회장을 이달의 전남대인으로 선정하고 표창했다.

본시손님

▲박양우씨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 ▲임근종씨 (홍보부장)

인사

광주지방국세청 <사무관 승진> ▲광주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염삼열 ▲부가가치세과 이용혁 ▲조사1국 조사관리과 함태진 ▲조사2국 조사관리과 조호형 ▲운영지원과 기연희 ▲백흥교 ▲광주세무서 조사과 노정운 ▲북광주세무서 체납징세과 강용구 ▲서광주세무서 체납징세과 김봉재 ▲광산세무서 체납징세과 박정환 ▲익산세무서 조사과 정명수 ▲정읍세무서 재산법안세과 이시형

조선대학교

▲부총장 겸 교육혁신원장 조훈 ▲대학연구윤리위원장 임용 ▲교무처장 김종경 ▲연구처장 겸 산학협력단장 최한철 ▲입학처장 이상우 ▲치과대학장 국중기 ▲미래사회융합대학장 겸 시민르네상스 평생교육원장 김복희 ▲중앙도서관장 임성철 ▲창업지원단장 황석승 ▲창업지원단 부단장 김호중 ▲창업지원단 창업교육센터장 강성호 ▲창업지원단 창업보육센터장 박형준

호남대학교

▲사회경영대학장 이영빈 ▲AI융합대학장 겸 AI융합인재양성사업단장 정영기 ▲링크사업단장 겸 스마트제조혁신센터장 양승학 ▲교육성과관리센터장 겸 비교과통합지원센터장 김진강

“예술가들의 활동 범위 넓히고파”

박상현 파인데이 엔터테인먼트 대표

지속적 활동 보장·안정적 일터 창출 절실
금호동 주민총회 앞장 등 사회 문제 해결

“사회적경제기업의 일원으로서 이 지역과 문화예술, 사회의 문제를 더 고민해 보고 해결해보고 싶습니다.”
광주 지역 사회적기업인 파인데이 엔터테인먼트(이하 파인데이) 박상현 대표의 포부다.
파인데이는 지난 2018년 개인사업자로 창업해 일반 행사를 진행하다가 지난 2019년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창업팀으로 활동, 같은 해 6월에 법인으로 전환했다.

한 한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이후, 금호동의 주민총회를 진행하게 되면서 현재는 여러 동의 주민총회를 진행하고 있다.
박 대표는 “주민총회는 총회에 필요한 몇 가지의 제안 시제를 가지고 주민들과 자치위원들이 함께 모여 내년에는 어떤 사업을 진행할지, 무엇을 개선할지 의견을 나누는 자리”라며 “현재 파인데이는 공연, 진행, 음향, 촬영, 포스터 디자인까지 총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파인데이는 금호동에서 진행된 주민총회를 전부 영상으로 기록, 전국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 파인데이의 영상은 국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박 대표의 파인데이에 대한 애정은 각별하다. 음악전문가로 졸업 후 현장에서 공연활동을 했었다는 그는 “저 뿐만 아니라 주위에서 활동하는 음악가들을 보면

유학을 다녀왔음에도 불구하고 곡집 또는 시립, 시립 악단은 자리가 부족해 입단하지 못하는 등 예술전문자가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전무하다고 느꼈다”고 회상했다.
“저는 이런 사실이 사회적 문제라고 생각했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술가들이 대중들과 함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및 지속적인 활동 보장, 나아가 안정적인 일터 창출이 필연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파인데이를 통해 지역 예술가들의 활동 범위를 넓히는 등 문화예술의 고장이라는 광주의 내밀밸류에 맞게 문화예술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고 싶습니다.”
이어 박 대표는 “개인인 문화를 바꾼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만 생각했으나, 수많은 고민 끝에 같은 입장의 예술가들이 모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사회적 육성 사업에 도전해 지정받게 됐다”며 “앞으로도 관련 업계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오지현 기자



호남대 대학원 졸업생 한지승씨·김미례 교수
‘미혼남녀 결혼의향 공동연구’ 우수학술상

호남대학교 사회융합대학원 상담심리학과 졸업생 한지승씨(2020년 8월 석사졸업)와 상담심리학과 김미례 교수가 한국교류분석학회(학회장 전우경) 2021 연차 학술대회에서 ‘우수 학술상’을 받았다.
1일 호남대에 따르면 김미례 교수와 한지승씨는 지난 달 28일 ‘교류분석의 세계적 동향과 한국 교류분석의 발전방향’을 주제로 개최된 온라인 학술대회에서 등재학술지인 ‘교류분석학연구’에 투고한 ‘교류분석의 자아상태와 인생태도에 근거한 미

혼남녀의 결혼의향’으로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연구자들은 20대에서 40대 미혼남녀의 성격·가치관과 결혼의향의 관계성을 밝힘으로써, 앞으로 우리나라의 저출산 및 혼인 관련 국가정책 방안 마련에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했다.
또한, 미혼남녀의 결혼의향을 높이기 위해 교류분석 관점의 자아상태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나라 기자



여성가족친화마을 제작 수공예품 기부
동구 경양마을 재미곳간에 마스크·비누 등 전달

광주 여성가족친화마을이 지난 달 31일 여성가족친화마을 사업에서 제작한 면마스크 400개 등 150만원 상당의 수공예품 500여 점을 동구 경양마을을 재미곳간에 기부했다.
지난 13일 개소한 경양마을 재미곳간은 계림1동행정복지센터 내에서 취약세대와 위기가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며, 돌봄이웃에 생필품, 취사도구, 반찬 등을 제공하고 있다.
동구 여성가족친화마을을 지난 2동새마을 부녀회와 동구·동양·s는 마을사랑채에서

여성들이 만든 면마스크, 마스크스트랩, 주방비누 및 세안비누, 스킨, 놀이체험키트 등을 재미곳간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전달했다.
광주 여성가족친화마을은 마을 기반의 여성 일거리 발굴을 위해 역량강화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광주여성가족재단은 광주시와 함께 성평등한 마을공동체 조성을 위해 컨설팅 및 역량강화교육 등 여성가족친화마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연수 기자

광산구 ‘대한민국 건강도시상’ 우수상

광주 광산구가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에서 주최한 ‘2021년 대한민국 건강도시상’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1일 광산구에 따르면 ‘대한민국 건강도시상’은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주최로 102개 도시를 대상으로 두 가지 분야(공동정책, 일반정책) 모범사례를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광산구는 ‘온(溫) 동네가 함께 행복(福)으로(路) 건강(康)한’ 사업으로 일반정책 분야에 응모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광산구는 걷기 운동을 통해 누구나 쉽게 일상에서 면역을 높이는 ‘행복으로 걷기광산’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그동안 ▲온 동네가 함께 걷는 코스 개발(21개 동 34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품영정전 행복건강길 조성 ▲시민면역 클리닉센터 설치 ▲걷기 동아리 활성화 지원 및 워크온(걷기 앱) 챌린지 운영 ▲걷기지도자 양성 등 다양한 사업을 펼쳤다. 주민들의 걷기 문화 형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커뮤니티 활성화를 동

시에 추진해 워크온 가입자가 3만여 명에 달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최근 KT&G와의 협약을 시작으로 프로그램의 질을 한층 높이는 ‘걷기광산 시즌 2’도 본격화했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사진)은 “위드 코로나 시대에 시민 건강, 면역력도 안전의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며 “걷기 운동을 실천하며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광산이 될 수 있게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영봉 기자

Advertisement for '전매게시판' (Real Estate Board) featuring a signpost graphic and contact information for real estate services.